

칼럼



장기채 주필

옛사람들의 삶에서 배우는 '노년의 지혜'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초라한 겉모습을 싫어하기보다 아름다운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어린 아이들이 가정의 꽃이라면 노인은 지혜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노년의 지혜는 자신을 낮추고 욕심을 버리는데 있었다.

퇴계 이황 (1501~1570)은 하루 27간 먹었다.

반찬도 무, 가지, 미역 뿐일 때가 많았다.

농암 이현보 (1467~1555)는 임금에 수십 번이나 불렀지만, 한번 벼슬에서 물러난 뒤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이 일흔에 청나라로 끌려갔다가 75세에 고국으로 돌아온 청음 김상헌 (1570~1652)은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고향에서 두문불출했다. 보통 살아서는 천지에 순응하고 숨을 거둘 때는 편안했다.

대부분 어진 자는 오래 산다. 조선시대 27명 임금의 평균 수명은 46세였지만 청백리 (219명)는

68세였다.

고려왕들은 평균 42.3세까지 살았지만 스님들은 70.2세까지 수를 누렸다. 요즘엔 노인부양세대를 화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노인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원 덕분에 대한민국 이혼율이 낮아졌다는데, 노후에는 돌아갈 때까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데, 특히 자식이 사업하다 망하면 온 가족이 다 망하게 된다. 그러니, 이러쿵 저러쿵 잡다한 말들이 오간다. 과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씩씩하기만 하다.

과거 효를 강조하는 유교사상의 대가쪽 농경사회에서 벗어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친 현대의 핵가족시대에는 더 이상 본인의 노후를 자식들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것도 냉정한 현실이다.

우리는 흔히 지식(知識)은 양적 개념이며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 아는 것인데 비해, 지혜(知慧)는 질적 개념이며 미래에 대해 아는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로 아는 것이다.

지식이 사실 인식인데 비해, 지혜는 의미 각성을 의미한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먼 것과 가까운 것을 같이 볼 줄 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작다고 보지 않고, 큰 것도 크다고 보지 않는다. 물건의 양은 무궁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간의 흐름에 대해 알고 있다. 오래 살아도 싫어하지 않고, 짧게 살아도 더 바라지 않는다.

시간은 멈출 수 있는 게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찾다가 기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얻어도 기뻐하지 않고 잃어도 슬퍼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분복은 일정하지 않다. 사람은 태어날 때 두손을 꼭 쥐고 있지만, 죽을 때는 반대로 두 손을 편다.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움

켜잡아 가지고 싶지만 죽을 때는 가진 것을 다 내주어 빈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즐기는 법을 배우고 배우는 법을 배우야 한다.

하지만 이 나라 노인들은 지혜고, 버려야하고 할 겨를조차 없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이 더 많다.

이제 큰 지혜는 작은 실천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한 때 세계를 이끌었던 지도자들도 결국 나이가 들에 따라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아주 사소한 일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아름다운 노년기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지만 노년은 원숭이라 하지 않았던가. 어린이와 똑같이 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늙은이가 되면 설치지 말아야 한다.

미운소리, 우는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랑 하지도 말고 조심조심 알려줘야 한다.

알고도 모른 척 어수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옛날 노년의 지혜는 천지에 순응했다.

자신을 낮추고 욕심을 버리면서 살아왔다.

사설

병역특례, 방탄소년단은 왜 안되나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전 세계적 인기로 국위를 선양하면서 아들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권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노용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산업기술인력이나 전문연구인력, 예술인,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병역특례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유독 대중문화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안 되고 있다"며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나"고 지적했다.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가 처음 화두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18년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 1위를 차지한 뒤였다.

비슷한 시기에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몇몇 선수수가 병역 특례를 위한 목적으로 선발됐다는 논란이 나오면서, 운동선수 못지 않게 국위선양하는 방탄소년단의 병역면제 주장이 불거졌다.

그러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K팝의 큰 장벽으로 여겨지던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에서까지 1위를 차지하면서 이들에 대한 병역혜택 주장이 다시 나왔다.

병역법에서 순수문화 예술인, 체육인과 달리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무를 지게 된다. 하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메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73년 3월 3일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따른 법률'이 제정되면서 예술·체육 분야가 신설되면서 국제대회 입상자 등 예술·체육 종사자들이 입대가 아닌 곳에서 자기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4개월간 문화체육부 장관 감독하에 병무청장이 정한 해당분야에서 활동해야 하지만, 강제 징집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 면제에 가까운 조치다.

이와 같은 기회는 각 분야 최고 기량 보유자에게만 주어지는데 연간 45명 안팎만이 기회를 얻는다. 현행 병역법상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체복무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BTS는 10년간 60조원, 올 한 해에만 약 6조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다. 대한민국 가수로는 최초로 빌보드 차트 1위까지 기록하는 등 한류 전파와 국위선양의 가치는 추정도 힘들다.

이 자랑스러운 7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택배물' 절도 예방법 알아두자

누구나 한 번쯤 타인의 집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물건을 한 번쯤 본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감염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시책으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 자제로 온라인 구매를 통한 택배 서비스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택배물건을 표적으로 한 택배 절도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통 집을 비울 때가 많은 낮 시간이나 장기간 외출을 할 경우 택배물건을 받을 수 없어 주로 택배 직원에게 '문 앞에 두고 가세요'라고 말하게 될 때가 많다.

하지만 CCTV가 없거나 경비실이

없어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없는 원룸들의 경우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물건은 절도범의 표적이 된다.

택배물건을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택배를 주문할 때 자신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거나, 경비실과 같이 택배 물건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장소를 이용하고, 만일 직접 받기 어려울 때에는 직장이나 집 주변 무인택배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는 택배 수령인을 남성으로 표시해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처럼 택배물건을 절도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주문 때부터 피해예방을 하려는 주의를 조금만 기울인다면 범죄예방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택배물건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재복/고흥경찰서대서파출소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동구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형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